



초여름 날씨...물이 좋아

16일 낮 최고기온이 광양 27도, 광주 23.7도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센터 야외분수대에서 한 어린이가 솟아오르는 물을 신기한 듯 만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들길 탐방

다시 떠나볼까

순환버스 운행 21일 재개

무등산 순환버스 운행이 오는 21일 재개된다. 광주시는 16일, 무들길 완전 개통에 따라 무등산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6차례 운행되는 무등산 순환버스는 광주역 앞에서 출발해 충장사~담양남면~화순시서초교~큰재~소태역~증심사~광주역 77km 구간을 오가게 된다. 2시간30분 가량이 소요되며, 요금은 2000원이다.

지난해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행돼 총 1만2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형기기자 redplane@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8분 해질 19시 07분 달돋이 03시 30분 달질 15시 33분

아침안개주의
대체로 맑고 오전에 내륙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었다.

광주	맑음	7/21℃
목포	맑음	6/16℃
여수	맑음	11/17℃
나주	맑음	5/21℃
완도	맑음	7/20℃
구례	맑음	6/23℃
강진	맑음	5/20℃
해남	맑음	4/19℃
장흥	맑음	4/20℃
순천	맑음	8/22℃
영광	맑음	4/18℃
진도	맑음	5/18℃
전주	맑음	6/20℃
군산	맑음	5/17℃
남원	맑음	5/21℃
혁신도	맑음	6/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0.5~1.5m 주위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목포 11:50 04:44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목포 00:00 17:14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여수 06:56 00:2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여수 19:09 12:5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9/22	11/21	12/17	13/17	13/16	12/19

산책중 개 풀어놓지 마세요

시민들 근린공원 등지 마주칠때면 '윽찝'

광견병주의보 속 "무섭고 불편하다" 호소

지자체 단속 실적 전무

나들이철이 되면서 근린공원이나 동네 산책로 등에 풀어 놓은 개들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목줄이나 배설물 관리봉투를 갖추지 않은 채 애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가 하면 맹견을 풀어놓는 경우마저 있어 인명피해의 위험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에서 광견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고, 지난 15일 전남의 한 마을에서는 집을 탈출한 개 한 마리가 밭에서 일하고 있던 주민들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사는 박순호(45·가명)씨는 최근 주말 산책로 수변공원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기분이 몹시 상했다. 목줄을 매지 않은 개와 함께 산책 나온 사람들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를 풀어 놓았다. 자

릿 개가 흥분해 사람이라도 문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와 인근 산책로도 마찬가지였다.

운동을 위해 광주천변을 자주 찾는 다는 천모(여·67)씨는 "목줄 없이 뛰 어다니는 2마리의 개와 마주쳤는데 무서워서 혼났다"고 말했다.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무등산 동쪽 골 산책로에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나타나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건 제기됐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를 데리고 나갈 때 목줄을 매는 것은 기본"이라며 "개가 흥분한 상태에서 도망가거나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반한 애견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다니는 경우

와 애견동물의 배설물(소변은 의자 위만 해당)을 수거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현재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것. 각 지자체별로 관리·운영하는 공원의 애견견 등 출입과 관리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단속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다.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과의 한 관계자는 "공원의 개 출입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문 부착을 늘리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까지는 계도 차원에서 법적규정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위반시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경찰, 5대 범죄 검거율 전국 1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전남지방경찰청의 강력범죄 검거율이 단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올 1분기(1~3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검거율이 80.5%로 전국 평균 68.5%보다 12%포인트나 높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검거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기간 검거율(64.2%)보다 16.3% 포인트가 높았으며, 사건 해결이 어려운 절도범 검거율도 54.8%로 전국 평균 43.5%에 비해 11.3%포인트가 높았다. 이 같은 검거 실적으로 인

해 절도 범죄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6%가 감소하는 성과도 거뒀다.

전남경찰청은 매주 절도사건 범죄분석을 통해 각 경찰서 간 범인 및 범포수범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연관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재배당, 효율성을 높인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했다. 또 분기별 베스트 팀 선정·포상, 검거 우수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현장 격려, 즉시 포상제 실시 등 일선 경찰 및 형사에게 범인 검거 동기를 부여한 점도 이 같은 높은 검거율에 기여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전국 어디서나 볼수있다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열람내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대주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될 수 있다. /연환뉴스

대학 편입학 문 좁아진다

내년부터 인원 줄이고 모집 시기도 연1회로

내년부터 대학 편입학 모집규모가 축소되고 모집시기도 1회로 줄어드는 등 편입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대학의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의 모집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편입학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지역대학 기피현상이 편입학에서 두드러져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됨으로써 수도권대학의 교육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지역대학은 재학생이 줄어 학교 운영이 곤란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문제가 심각해져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현황을 보면 1학년은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비율이 수도권대학의 경우 111.8%, 지역대학은 108.6%이다. 3학년은 이 비율이 수도권대학은 118%, 지역대학은 98.6%였다.

이는 편입학이 이뤄진 3학년에 수도권대학은 정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

이 재학하는 반면 지역대학은 정원도 못채우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원내 일반편입학 여석을 산정하는 기준을 그동안 전입교원확보율만 반영한 것을 교사확보율, 교직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까지 포함한 4대 교육여건지표를 모두 반영해 산정토록 했다.

현재 전기와 후기로 연간 2회 실시하는 정원의 편입학 모집은 전기 1회로만 축소한다. 다만, 국내외 외국의 학기제가 다른 것을 감안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종전처럼 연 2회를 유지한다. 정원의 학사편입학 선발비율도 축소한다.

현재 학사편입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연환뉴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531-총-359호

“우울증”의 한방치료!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제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안내 • 화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신경통, 안면홍조, 경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화관 건너편

※ 주차장 완비 ※ 건물 옆 패밀리카터가

경희한의원

우울증 원인

- 생물학적 원인 - 유전적, 체질적 원인
- 사회적 원인 -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 정신적 원인
 - 사려 과다나 실의, 비탄 등 정신적인 충격이 장기를 쇠약하게 하고, 그로 인해 氣血의 순행이 지체되거나 습열·식담 등이 정체되어 흡수·배설이 원활치 못 한데서 우울증이 생기기 된다.
 - 정신적인 요인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할 때, 즉 욕구불만이 쌓일 때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소심한 사람이나 내성적인 사람에게 흔히 나타난다고 하겠다.

우울증 증상

- 계속되는 우울, 불안, 혹은 공허감
- 절망적인 느낌, 열세적 사고
- 죄책감, 무가치 혹은 무기력감
- 성생활을 포함하여 한 때 즐거웠던 일이나 취미 생활에서 의욕 및 흥미상실
- 불면, 아침에 일찍 깨어나 과도한 수면
-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 과식이나 체중 증가
- 힘이 없고 피로하며 몸이 처지는 기분
-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기도
- 초조감, 쉽게 짜증남
-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
- 두통, 소화기 장애 또는 만성 통증 등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되는 신체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의 치료

치료원칙은 우울증의 병리기전에 의거하여 울결한 氣를 순조롭게 순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화·담·적의 경중에 따라서 火를 끌어내린다든지 痰 또는 積을 없앤다든지 하는 방법을 배합한다.

한약처방으로는 소간해울탕, 귀비탕, 은당탕, 보혈안신탕, 조위승청탕, 소요산 등이 많이 활용된다. 침치료는 울체된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경희 한의원> 전 선 형 원장